



제04호 / '15.5.26(화)

지부교섭 속보

기본급 159,900원 인상!
유급 대체휴무 쟁취!
실질적 위험성평가 시행!

□발행처:선전부 □발행인:조민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사측 성원 미달로 5차 교섭 무산!

말로만 원활한 교섭, 참석부터 해야

보쉬, 코스모링크 불참

교섭위원들이 멀리 충주 KDK까지 달려왔지만 결국 5차 지부교섭은 무산되었다. 보쉬와 코스모링크 사측 교섭위원들이 교섭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1차 제시안이 나오기로 예정된 교섭이었으나 교섭은 열리지 못했다.

사측 교섭위원은 말로는 원만한 교섭, 빠른 타결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교섭에는 무성의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 5차까지 교섭이 진행됐지만 아직 사측이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도 보지 못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못막으면 임단협도 없다

올해 지부교섭을 비롯한 임단협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시도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포함된 내용들이 상당부분 임단협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현대차, 기아차만 해도 임금개약안이 나오고 있다. 직군별, 직무등급, 역량평가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함께 내놓은 역량평가표를 보면 초등학생 수행평가만도 못하다. 업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 대처능력이 유연한지, 책임감 있는 자세와 태도가 있는지, 상사의 지시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지 등을 점수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점수는 평가하는 관

리자의 마음대로 매기면 끝이다. 이런 역량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면서 이것을 토대로 임금을 차별적으로 주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임금체계 뿐만 아니라 정부는 노동부 시정지도를 통해서 단협도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협을 조사하고 있다. 인사 경영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얘기하는 조항은 '정리해고 시 노조와 합의', '전직, 전환배치 시 노조와 합의'와 같은 조항들이다. 그동안 노조가 투쟁으로 얻은 성과들이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회사 경영하기 어려워니 해당 조항들을 없애겠다는 노동부가 나서고 있다. 심지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노동부도 알고 있으면서 저러고 있다.

임금체계 개악안 용납 못해

5차 교섭은 성원 부족으로 열리지 못했지만 인사말을 통해 지부의 뜻을 사측에 전했다. 올해 교섭이 원만하게 풀리려면 현대차 같은 임금개약안을 들고 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편승해 임금체계를 개악하는 시도를 한다면 올해 교섭은 원만히 될 수 없다. 차기 교섭에서는 사측의 성의있는 제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5차 교섭 속기록

임금개악안 가져오는 일 없길 바란다

사회 : 성원 확인 결과, 성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노 : 두 군데 회사나 빠지다보니 성원이 안되어 교섭은 안될 것 같다.

사회 : 상호간 인사하고 자유롭게 이야기 하자.

사 : 여기 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 같다.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작년에 이어서 저희 회사는 두 번째인데 다른 회사는 몰라도 자동차 업종 말고는 경기가 다 어렵다. 주위 공장 보면 전부 다 어렵다. 올해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회사 사정, 노조 원하는 바가 있으니 최대한 시간 내에 협상을 완료하고 회사 성장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올해 노조도 선거가 있어서 일찍 끝나는게 좋다고 하셨으니 단기간 내에 집중교섭으로 일찍 끝나길 바란다. 시측도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하겠다. 오래 싸워봐야 남는 장사가 아니다. 올해는 다른 때보다 더 어렵다. 대한민국 전체가 내려앉아있으니 그런 부분도 감안해달라. 원만하게 하면 고맙겠다.

노 : 성원이 안돼서 교섭이 안되는 점 유감스럽다. 충주의 좋은 정치도 감상해야하는데 그럴 여유도 없다. KDK에서 1년만에 뵙는데 반갑다. 교섭을 원만하게 끝내려면 노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야 말로 올해 빨리 원만하게 끝내고 싶다.

5기 때도 1월까지 한적도 있고 작년도 유독 길었다. 올해도 노동운동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랄까, 정부가 편법까지 동원해서 시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당장 금속노조는 상가 분위기다. 두 분이나 돌아가셨다. 전반적인 분위기도 좋지 않다. 우리 지역이 그나마 노사가 심각하게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 경우이고,

나머지 지역은 크게 작게 대립 중이다.

완성차 기업지부 교섭이 부품사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의 유성기업 같은 경우가 시범케이스가 아니었나 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용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있다. 각 사별로 작년 통상임금 문제로 조금 그랬어도 올해는 팬찮지 않을까 한다. 현대차, 기아차 마냥 임금개악안을 가져오면 심각해질 수 있겠지만, 그럴 일 없길 바란다.

사회 : 차기 교섭은 5/28 코스모링크에서 하겠다.